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역대하 20:1~19)

1.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기초적인 믿음에 연관된 기가 막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쉴 새 없이 문제가 주어집니다. 몸에 병이 들거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나 이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나가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은 있습니다. 또한 나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한 문제도 예외 없이 해결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기본적인 믿음과 연관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행동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보다 당연한 말이 없어 보이지만 이보다 잘못된 말이 없고 이보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주어지는 이유는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하나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내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돈 문제가 크게 발생하거나 사업이 망하게 생

겼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입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급하게 여기는 것은 사업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만 합니다. 이론으로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업보다 더 크게 볼 때에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는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인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래의 크기대로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 삶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문제도 작고 사소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문제가 사소한 것으로 바뀌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극히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기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그 문제가 사소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내 마음에서 사소하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크기를 찾고 하나님의 크기대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아직도 크게 보이고 중대하게 보이고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된다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문제가 크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의 목적이 특별합니다.
지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대대적인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 왕국 유다로 진격하기 위하여 사해 남동쪽에 집결했습니다. 작은 나라인 남 왕국 유다로서는 무척 위험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커지자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면 좋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레위인 제사장 방백들로 이루어진 선생들을 백성들 가운데 파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아직 대외적으로는 관심을 두지 못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주변나라들에게 남 왕국 유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조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여호

사밧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대외적으로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백성들에게서도 그 경험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한 것인데 여호사밧 왕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직 이 상관관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안이 안정되자 대외적인 관심으로 북진정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과 결탁을 해서 정략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어 아람을 공격했지만 대패하고 목숨만 겨우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이 대외적인 정책조차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호사밧은 다시금 내치에 집중합니다. 모든 재판과 소송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나라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침공이 일어났고,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늘의 흐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 흐름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대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침공해온 외국의 군대는 남 왕국 유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외국의 침공이라는 현실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도 침공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집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봄으로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문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금식은 죽음을 향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먹음으로서 살아가기에 먹는다는 것은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살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호사밧의 금식은 하나님께 강청을 하는 것으로서 느껴집니다. 자신들에게는 이길 힘이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여호사밧이 걸어온 길을 살펴본 이유가 바로 본문의 금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원하는 답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강청하고자 합니다. 내 문제를 전혀 모르시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답대로 되기 위한 능력을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의 금식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압도당하여

도저히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는 먹고 사는 가운데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금식은 이 먹고 사는 영역자체에서 등을 돌리고 죽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벌어지는 영역 바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아예 마음에서 보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결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나의 강한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내게 주어진 문제들은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문제를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문제의 능력을 크게 믿는다면 두려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 자체에 대해 싸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곧 문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강력하고 크더라도 내 아버지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문제에 압도되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 금식의 의도는 곧 십자가 생활화의 의도와 일치합니다.

강력한 십자가 생활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곧 삶의 영역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며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그것에 등 돌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볼 때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사소한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현장을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조차도 하늘이 열리고 마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죽는 것도 사소한 일이 될 수 있었기에 죄 없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금식을 한 이유도 다윗의 길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예로 들어봅니다. 골리앗을 앞에 둔 사울과 그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골리앗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사소하게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음에도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골리앗을 사소한 칼잡이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사소하게 보았던 것과 같이 되기 위하여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쫓기듯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큰 상태로 믿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지만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아버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곧 문제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전혀 능력이 없는 분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 종교의 방식이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사소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 문제가 내 목숨에 관련된 문제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금식기도이고 십자가 생활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소하든 크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는 십자가를 붙잡고 삶에 대한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삶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면 내 마음에서는 문제가 사소하게 느껴지며 그 영향력에 대한 실감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신의 일로 삼으시고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든 작든 문제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해결하고 답을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크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으셔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크게 보았더라도 내일은 문제를 크게 보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본문처럼 금식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답을 내거나 답을 위한 능력을 구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영향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금식하듯이 마음이 삶의 현장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금식의 의도가 가장 완벽하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고 크

게 느껴진다면 금식을 통해서라도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문제의 양과 문제의 수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자주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문제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찬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